

<2021 제주녹색당 총회 회의록 전문>

녹색당가 부르기

참가자 소개

- 오프라인 18명: 안재홍, 김순애, 김선, 한은정, 민병기, 신현정, 김미성, 이두백, 오안자, 서신심, 김영란, 김명완, 이건웅, 정화빈, 박소희, 부순정, 이진아, 현성미
- 온라인(Zoom) 6명: 은종복(세화), 고혜령, 김영주, 박은서, 노민규, 조아해

권리당원 269명(자료집 50쪽)

총회 결정 위임: 140명(문자, 구두 통보) + 현장 참여 18명 + 온라인 6인 = 164명 / 269명
과반 넘겨서 총회 성립

녹색당 평등문화약속문 함께 읽기

강령 전문 함께 읽기

서기 임명: 김영란(사전에)

안건 1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 2 2021년 사업계획(안)

안건 3 2021년 예산(안)

안건 4 제주녹색당 규약개정(안)

안건 5 제주녹색당 운영위원 선출

총 다섯 가지 안건 진행: 한은정 동의, 김선 재청 → 안건 확정하고 이 순서로 총회 진행

안건 심의 및 의결: 최대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진행

안건 1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사무처장 김순애 진행

자료집 4쪽: 6차례 총준위 끝에 사업보고, 경과보고 참고

2020년 4대 목표 평가

목표1. 당원확대 및 참여 활성화

2020년 당원 입탈당 현황: 탈당 50명, 입당 37명 이렇게 힘들었던 해가 없었다.

입당 분석

- 지인 권유, 자연 생활환경 지키기 위해서,
- 30, 40, 50대가 가장 많음

탈당 이유

- 개인사유, 무응답: 20명 외에 선거과정의 불만이 가장 많이 차지함

평가: 자료집 6쪽 참조

녹색당 스타일의 관리 방법, 비대면 상황에서의 관리 방법이 필요함

당원 참여 활성화

1) 2020 의제 모임 활동 현황 참고 (자료집 6쪽)

- 의제모임 많아짐: 조직팀, 현미채식, 논평, 기정떡, 녹녹한 책임기

- 평가: 모임은 많아졌고 다양한 의제모임의 축진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이거나 양적 확장에 비해 의제모임 구성원이 중첩되는 경우 많아 전체 참여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하반기 총선 이후, 코로나 등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 되지 못함. 페미니즘 모임 구성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받고 시도했으나, 내용이나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이 지속되지 못함

2) 조직팀 제녹당의 날, 정당 연설회

- 평가: 양적확장은 있었으나, 의제모임 평가와 유사하게 동일한 당원들이 반복 참석하는 형태. 코로나 여파로 하반기 계획된 활동이 진행되지 못함

목표2. 제2공항/비자림로 및 난개발 대응 활동

천막 당사 유지하며 제2공항 투쟁 전개. 반개발, 탈성장 동맹의 전선 확대가 목표

활동 경과

- 천막촌 활동, 비상도민회의 참여.

- 하반기 이후 여론조사 위주로 넘어가면서 작년에는 비상도민회의가 계획한 활동에 조력하는 형식으로 진행

- 비자림로 시민모임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동송비 공동: 동물 테마파크, 송악산, 비자림로 연대체 제안 →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 연대활동 진행

평가(10쪽)

목표3. 원희룡 퇴진 활동 (11쪽)

목표4. 정책위 활동 강화를 통해 정책역량 강화(11쪽)

- 평가: 12쪽

총선 평가(14쪽)

지난 총회 때 총선 공보물 발행을 위한 예산 및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 운반의 어려움, 종이 홍보물의 의미 등으로 공보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 → 추후 상황 변화로 온라인 운영 위원회에서 공보물 비용 지원하기로 결정 → 250만원 정도 총회 때 결정하지 않았던 비용 발생(15쪽 결산 참조)

총회 전 당원토론회 내용 정리 (15쪽 참조)

기타활동

- 1) 연대활동
- 2) 논평발간

2020 결산보고: 한은정 진행 (23쪽)

수입

- 정기당비가 당원 탈당으로 예상보다 적었음
- 후원금: 개인후원이 늘었음

서신심 질문

14쪽 선거 유세: 서귀포 오일시장 아니고 매일시장으로 수정요청

수입 중 정기당비는 전국당에서 재분배 받은 금액인가?

- 안재홍: 그렇다

재분배 전의 실질적 당비 총합은 얼마인가?

- 김순애: 250만원 정도, 당원 1인당 당비 평균 만원 정도

서: 그렇다면 당비 만원이 안 되는 당원은 만원으로 올리기, 만원 내는 당원은 만원 더 내기 캠페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김선: 청소년 당원의 가입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그것을 강제할 순 없다

서: 진입장벽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최저시급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청소년들에게도 부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 연간 1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소득공제 대상일 경우 만원 내고 있더라도 만원씩 더 내기 권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무국 차원에서든

김명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존에 당비를 만원만 내는 당원, 이름만 있는 당원도 많은데 기존 3천원 5천원 다 찾아서 문자를 보내자는 것인가? 규약을 정하자는 것인가?

서: 권유사항으로 전체 문자 등을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안재홍: 예전에 전화를 해서 당비 증액 캠페인을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정리가 되어서 3천원 이상은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시도 및 정리를 했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정화빈: 발언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로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사회자에게 정리 요청한다.

안재홍: 서신심 당원의 당비 증액 의견은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하자. 경제가 어려워지면 후원 당비 등을 제일 먼저 줄인다. 고민은 하고 있다. 의견 감사.

서신심: 2020년에 천만원 이월 받아서 1180만원 넘기니까 살림 잘 한 것 같다.

사회자: 사업 결산 보고서는 채택 하는 것으로

-좌중 동의. 통과.

감사보고서: 옥천 하승우 (25-26쪽)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부순정: 총회준비과정에 당원참여를 확대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 회의 날짜를 미리 통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공유. 의제모임은 많지만 운영위 등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연계를 통해 활동 당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것 같다.

안재홍: 감사보고서에 참고할 내용이 많으니 꼭 읽어보고 나중에라도 의견을 달라는 한은정 당원의 의견이 있었다. 나중에라도 자유롭게 감사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달라.

서신심: 하승우 씨가 탈당했는데 당원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나?

안: 현재 규정이 그렇다. 가능하다.

사회자: 감사보고서 채택하는가

- 만장일치로 감사보고서 채택

안재홍: 쉬자는 제안 있는데 5분 쉬고 할까요? 3시 19분까지 휴식 후 진행

안건 2번 2021년 사업계획(안)

1. 조직위원회 신설을 통한 조직 강화(27쪽): 부순정 발표

- 당원의무교육: 조직팀 내에서 커리큘럼을 실행하기 어려움(역량). 조직위원회에서 이를 함께 해줄 당원을 찾고 있다. 어렵다고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니까 고민하면서 당원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꼭 짜고 싶다. 욕심보다는 실천 가능한 한에서 계획을 수립했다.

2. 정책위원회: 안재홍 발표(28쪽)

3. 2022 지방선거 대책 선거본부 구성: 김순애 사무처장 발표

내년 지선의 큰 방향은 총회 때 도출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로 지선관련 당원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해서 운영위에 선본 구성을 위임하고, 선거 관련 당원 토론회 계획 잡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선의 방향은 당원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 후에 진행될 것

4. 제주녹색당원 모임 공간 마련: 김순애

- 천막 당사 정리함: 지난 수요일

- 도청앞 천막촌도 물리적인 공간은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 중

- 다음 주에 언론으로 천막당사 마감을 알릴 예정

- 당원을 위한 공간 마련 필요함: 저렴한 비용에 회의공간으로 쓰기 적합한 한마음 병원 근처의 공간 마련 가능할 듯. 10-15평

5. 당원 소통 활성화: 김순애 (29쪽)

6. 청년녹색당 활동 공유: 신현정 발표

사업계획 내용에 관한 의견

부순정: 당원의 날 3월에 하기로 한 계획이 4월로 변경될 예정. 포스트 코로나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백영경 선생의 강연. 이 행사와 당원의 날이 어떤 식으로 함께 할지는 추후에 공유할 예정. 참고하세요.

서신심: 정책위 활동 계획 중 전문가 토론회 계획에 에너지와 기후위기토론회 5월과 6월 중에 진행하겠단 건가? 이 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리 추천하고 싶다. 주용기 박사. 에너지와 기후위기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어함. 해상풍력 절대 반대.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주장하는 분. 그리고 당원 게시판 운영, 당원이 운영하는 가게 지도 계획이 반갑다.

박소희: (정책위) 노동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안재홍: 하기로 했던 사람이 탈당해서, 정책위 회의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

부순정: 청년녹색당이 지역 청년과 연계할 활동 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해주세요.

신현정: 청년녹색당 활동 35세 이하 당원, 제주는 청년 당원이 굉장히 적은 수, 그 중에서 청년당 활동도 적다. 제주대 내에 활동하는 청년 당원을 발견하고 만났는데,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녹색당원들이 만나서 활동하면서 지인들을 영입하는 게 제일 좋은 조직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기대하고 있다. 비거니즘 모임 진행 시 포스터 하나만 보고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고, 제주 내에 비거니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다른 정당에서 하지 않는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녹색당이 먼저 활동해서 지선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 중

김명완: 물 관련 정책은 없는지?

안재홍: 농업과 농촌 파트에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 포괄하기는 어렵다

김명완: 어제 뉴스에 이마트가 소주사업을 철수했는데, 물 관련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안재홍: 녹색당이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과 파괴 중심의 일자리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그런 정책을 내년 지선 전에 만드는 것이 고민인데, 제주의 경우 그런 뉴딜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은데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책위에 오셨으면 좋겠다. 제주가 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동의 것이라 하지만 축산 오수 문제, 기업이 물을 빼가는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고혜령(온라인): 현미채식의제모임이 있다는 걸 몰랐다. 현재 현미채식 중.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외로웠는데 지금까지 잘 몰라서 아쉬웠는데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게 어떨까? 청년들은 SNS를 많이 하니까 인스타 등 활용하여

안재홍: 좋은 의견이다. 의제모임을 당원들에게 문자 등으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비당원들도 의제모임을 계기로 당원이 될 수도 있고.

김순애: 총회 이후로 의제모임 안내, 관심 여부, 참여여부 확인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3월 말에 대대적으로 정비된 시스템 홍보 및 안내가 나갈 예정.

정화빈: 전년도 정책위 예산 집행률이 50% 정도. 매년 정책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잘 아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정책이 잘 정리가 되면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될 것. 최종 결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 부탁한다. 부담 줘서 죄송하고 항상 감사하다.

오안자: 요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3.1절 연휴기간에 16만이 제주를 다녀갔다고 하고,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깨달음. 작년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졌는데 친환경적으로 텀블러 이용 등 운동이 있었다가도 코로나로 문혔다. 뉴스에 항상 적재된 쓰레기 더미 등이 보이는데 녹색당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2019년도 이후 녹색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녹색당의 오프라인 모임도 적었고 너무 조용하고 침울한 느낌? 4명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김미성: 처음으로 총회 참석. 사업보고 보면서 놀랐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많은 모임이 있고, 적은 인원이 중첩돼서 활동했던 걸 알았고, 많은 일을 했고 고생했구나 생각. 정책 제안을 차마 못하겠다. 정책 제안을 하면 내가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정책 제안을 못하겠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선택이나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안재홍: 사업계획 관련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쓰레기, 물, 노동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 당게, 당원가게지도 개발 좋다, 정책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자는 의견. 이런 사업을 기초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듬어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김미성 당원 말대로 점하나 찍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당원들의 치열한 고민, 지적이 없으면 더 나아지기 힘들 것. 문제 제기 하고 사무처, 운영위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줄탁동시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제출된 안건 사업계획을 통과하고 후에 운영위에서 계획을 집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 전원 박수로 통과

안건 3 2021년 예산(안): 한은정 발표 (30쪽)

-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무처장의 거부로 일단은 현행 유지
- 당사 운영을 위한 연 임대료 100만원 책정
- 조직위원회 승격에 따른 예산 반영
- 현재 활동비 개념 없이 자원활동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서 운영위원들 지원을 위해, 정책위 지원금이 500만원→400만원으로 삭감, 조직위원회 300만원 예산 책정, 청녹당 예산 70만원 책정, 운영위원장 활동비(회의비: 매달 소정의 금액 지원)
-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 예상 이월금이 500만원이 못되므로 특별당비, 후원금을 예산 초과 달성해야 하는 상황

안재홍: 당원 모임 공간을 새로 구하면서 유지비 연 100만원 추가되었고, 운영위원회가 회의 짧으면 3시간, 먼 곳에서 오는 분들 최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인당 2만원 지원(회의비 항목 신설)

서신심: 회의비를 충분히 잘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이번에 처음 회의비를 지급하게 됐는데 이정도 아니라 조직위, 정책위 등 상설 위원회에 회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의비 지급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세 번 경험함 1. 아파트 동대표 회의: 회식비만 쓰고 회의비를 안 줄 때 참가율이 50% 미만 회의가 매번 무산되었으나 회의비 3만원 지급하기 시작 하니 참가율 80% 이상. 회의비를 5만원으로 올리니 100% 참석. 회의를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해서 질이 높아짐. 2. 한살림 내의 소모임 활동 시

매번 참가인원당 1만원 지급했더니 소모임, 마을 모임 참가자 수 폭증하고 활동이 활발해짐. 그 결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한살림 마을 모임이 제일 먼저 나서게 됨. 현재는 인당 금액이 아니라 모임별로 지급하니까 마을 모임 5명, 소모임 3명 참가자 수를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활동이 축소됨 3. 현재 한살림 제주 조합원 1만여 명, 이사 11명 규모인데, 이사회를 참관해보면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회의 참가율 거의 100% 육지에 가 있어도 줌으로라도 한다. 회의 참가비 7만원. 저녁 6시에 시작한 회의가 밤 12시 넘어서 끝나도 아무 불만 없고 깊고 넓게 논의 진행, 책임 있게 이사회 활동을 한다. 모임비, 회식비 지급보다 더 중요한건 회의 참가비를 지급하는 것. 운영위, 총준위 뿐만 아니라 정책위, 조직위 등 최소 상설위에 책정해야 한다. 운영위가 최소 3시간이라면 시간당 1만원 개념으로 3만원 지급으로 인상했으면 하고, 기타 회의들도 시간에 비례해 책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재홍: 현재 서신심님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한살림도 인당 참가비에서 소모임별 지급으로 변경한 게 예산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지? 현재 회의비 2만원도 힘들게 책정한 거라,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렵다. 고민은 해보겠지만, 현재 운영위원회에게 회의비를 책정한 것도 특별당비 목표액을 달성해야 실현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주녹색당의 운영위원회는 회의비 없어도 거의 100% 다 참여했다.

현성미: 당비를 늘리겠다! 당비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김순애: 서신심님의 상설위원회 회의비 제안은 의견으로 받고 운영위원회 내에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정리합니다.

사회자: 3번 안건도 박수로 통과

이두백: 강아지 밥 줘야 해서 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러 가시느라 회의를 떠남. 이후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임한다

안건 4 제주녹색당 규약 개정의 건: 안재홍 진행

규약개정은 조별로 동의 확인

33쪽 14조: 조직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신설. 3항 추가.

- 동의: 한은정, 재청: 김선

현성미: 16조 2항 선관위: 구성과 운영 및 선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이 선관이 스스로 정하는 거 아닌가? 16조에 위원회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와 모순되지 않나?

안재홍: 규정은 조직 내에서 결정하더라도, 승인은 운영위에서 하는 것.

현성미: 선관위는 운영위 아래에 있는 조직인가?

안재홍: 조직도 참고(49쪽). 각 조직의 규정은 운영위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다.

현성미: 이해했다.

참가자 전원 동의로 13조 신설 통과

6조: 운영위 당연구성원으로 조직위원장 포함 → 통과

7조: 2항 신설,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 규정 → 통과

8조: 5, 6, 7항 신설 당원소모임은 의제모임 이전의 단계, 이에 대한 지원은 운영위에서 의결 → 통과

9조(신설): 운영위원의 의무 → 통과

서: 이수 안하면 어떻게 되나?

안: 처벌 조항은 뒤에 나온다.

서: 제록당 조직위가 운영위원의 필수교육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가?

부: 반기별 신입당원 교육에 운영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2022년까지는 운영하고, 차차 커리큘럼을 마련해 가야 한다.

10조 5항: 현재 관행을 명문화함. 운영위원회의 총준위로 전환. 새로운 운영위원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 → 통과

11조: 기존 문구 정리 → 통과

12조: 코로나로 인해 새로 고민하게 된 내용. 정기모임에 대한 성격을 규정 → 통과

13조: 당원소모임 신설. 당원모임 활성화를 위해.

부순정 질문: 소모임은 자발적이고 편안한 모임, 1항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이 꼭 필요한지?

서신심: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 한살림의 경우 5인 이상으로 소모임 성립 기준을 둔다. 녹색당은 작은 모임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3인으로 잡은 것. 의견 찬반을 결정할 때도 3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부순정: 일도 이동 모임을 제안해서 둘이 할 뻔 하다가 3인 이상의 규정으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의제모임이 아닌 소모임을 신설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틀이 꼭 필요할지?

온라인 조아해님이 부순정 의견에 동의, 재청: 정화빈

안재홍: 2인 이상인지, 아예 인원 제한을 빼는 게 좋을지?

부순정: 활성화를 위해 굳이 인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소모임은 혼자서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김순애: 소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사업비 지원 등. 순정님 의견처럼 운영위 승인에서 참고할 것 같아서, 인원 제한은 없어도 될 것 같다.

안재홍: 3인 이상, 2인 이상, 인원제한 두지 말자 이 3안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재홍: 정족수 현장 17인, 온라인 5인 총 22인

3인 이상에 동의: 5인 (현장) 서신심, 김선, 현성미 / (온라인) 고희령, 봄봄

2인 이상: 5인 (현장) 한은정, 김명완, 이진아 / (온라인) 조아해, 비가림

인원 제한 두지 말자: 12인 (현장) 부순정, 정화빈, 이건웅, 김영란, 오안자, 신현정, 민병기, 김순애, 안재홍, 박소희, 김미성 / (온라인) 은종복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인원제한 두지 말자로 통과

14조 의제모임 해산 조건 → 통과

김순애: 의제모임은 소모임보다는 의제에 집중하는 모임이므로 “할 수 있다”는 문구보다는

보다는 당연히 운영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신현정: 2020년 연대활동이 많았는데 사무처 중심의 활동이었다는 문제, 제녹당 안에서 해당 의제로 활동하는 의제모임이 있는데도 사무처 중심이었던 문제 타파를 위해 의제모임장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해당 의제로 활동하는 운영위원이 해당 연대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소모임은 자유롭게, 의제모임은 운영위원으로 참여 연대활동, 운영에 개입하면서 의제를 녹색당의 의제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함. 총준위 안에서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총회에서 당원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규약 개정안에는 반영 안 되었다.

김순애: 각 모임에서 의제모임, 소모임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 운영위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우면 소모임으로 갈 수 있다. 녹색당 내 명확하지 않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의제 모임으로서 역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언어와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봄.

김미성: 녹색당에 결집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제모임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결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안: 김순애 당원 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들어와서 규약 개정 표결이 필요하다.

정화빈: 반대 의견.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 그러려면 자발적인 의제모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모임이 의제모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선례나 경험 없이 먼저 명문화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먼저 조직화 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의제모임 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개정안 표결

- 찬성: 총 14명 현장 12명 부순정, 박소희, 서신심, 오안자, 김미성, 신현정, 한은정, 김선, 현성미, 김순애, 안재홍, 이진아 / 온라인 2명 봄봄, 조아해

- 반대: 총 5명 현장 3명 정화빈, 이건웅, 민병기 / 온라인 2명 비가림, 고희령

- 기권: 총 2명 현장 2명 김영란, 김명완

- 부재: 온라인 1명 은종복

- 총 21인 중 14인 찬성으로 의제모임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개정

반대의견 기록 요청

정화빈: 좋은 선례가 있지 않고 명문화 하는 것에 걱정이 앞섭니다. 어렵겠지만 조직활동을 통해 의제모임지기가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6일 오후 4시 49분 서기 김영란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음)

서신심: 4개월 이상 모임 없을 시 해산되는 개정안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서귀포 지역 모임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안: 지역모임은 해산할 수 없음. 현재 사고상태로 봐야 함

신현정: 이에 따라 6조 4항 괄호의 참가여부는 삭제되어야 함

15조: 청년녹색당 명칭 변경 → 통과

17조: 감사 제주 외 지역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 통과

19조: 소환규정 신설

현재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소환도 총회에서 하도록(1항)

2항 2번: 운영위원회에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 소환의 발의는 → “당
직자 또는 운영위원 소환의 발의는” 으로 문구 수정
→ 19조 이견 없음으로 통과

25조 운영위원장 임기 변경(6개월은 너무 짧다) → 전원 동의 통과

현성미: 규약 개정안을 보니 운영위 권한이 막강한데, 이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
는지? 운영위에서 어떤 의견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반해서 의견을 펼치고 싶은 경우 방법이
있는지? 일반 당원은 운영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안재홍: 당원들이 안건 발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현재 전국당 당규에는
당원 1%의 서명을 받으면 전국위 안건 발의 가능함. 제록당 규약에 없는 안은 전국당에 준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면 어떨지?

서: 1%면 2.7명인데?

안재홍: 권리당원의 5%의 서명을 받아 안건 발의 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

서: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하나? 창당을 꿈꾼다고 할 때 1000명이 목표인데,
50명이면 너무 많지 않나? 10인 이상 등의 기준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
한은정 동의

안재홍: 제록당 권리당원 10인 이상의 서명이면 운영위에 안건 제안 할 수 있다, 재청이 없
어서 안건 폐기

김순애: 권리당원이 현재 269명, 5%명 10인이 넘어서 부담스러운 숫자이다. 5%를 3%로
줄였으면 좋겠다. 현재 기준 약 8명 → 한은정 동의, 김명완 재청

신현정: 전국당의 규약은 전국위원 중 한 명이 발의하고 서명하여 진행, 제록당 내에서는
당원이 발의해서 운영위 내에서 논의 되는 건지, 섬세하게 규약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안재홍: 제록당의 총회 소집권한은 제 5조 참조. 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의에 관한 제안이
서 신현정님이 고민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신현정: 8조에 현행 9번을 10번으로 옮기고, 9번에 “선거권을 가진 당원 0명 이상의 서명
에 의해 발의된 안건” 문구 추가를 제안한다.

안재홍: 표결 진행

1. 5% 이상 당원의 서명에 의해 발의된 안건

- 8명: 부순정, 박소희, 김명완, 오안자, 김미성, 신현정, 김선, 현성미

2. 3% 이상 당원의 서명에 의해 발의된 안건

- 12명: (현장) 서신심, 민병기, 김순애, 안재홍, 그린씨, 김영란, 한은정 / (온라인) 조아해,
봄봄, 고희령, 비가림, 은종복

3. 기권 2명: 정화빈, 이건웅

표결 결과 8조 9항 추가 → 제주녹색당 권리당원 3%의 서명을 받은 발의 안건으로 통과

상기와 같이 3월 6일자로 규약 개정

이후 고희령(온라인)은 위임 (오후 5시 경과)

안건 5 운영위원 선출 및 감사 선출의 건: 안재홍 진행 41쪽

신규운영위원 추천: 이진아(19년 선출, 임기 끝났는데 재선출), 김영주(온라인: 반디) 당원
→ 총회 선출위원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
감사 선출 → 통과

서신심: 총 운영위원 몇 명인가?

안재홍: 확인해봐야 한다 8-9명?

신임 운영위원 인사

이진아: 그린씨로 활동하는 이진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었다. 18년-19년 비자림로 싸움, 난개발 싸움 함께 하는 분들의 얼굴과 이름 때문에 다시 하게 된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바로 내일도 잘 모르겠지만 1년 정도 더 해보겠다.

안재홍: 운영위원 소개

당연직: 사무처장(김순애), 정책위원장(안)

조직위원장(부순정), 그린씨(신임), 김영주(신임), 청녹당대표(신현정), 정화빈(지난해 임명됨), 진수은(지난해 임명됨) 총 8인

부순정: 운영위원회 회의 참관을 한 번도 안 하고 말로만 회의시간이 길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고민 많이 하고 참석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고맙습니다.

정책위원회: 안재홍, 이선자, 노민규(비가림) 3인

조직위원회: 한은정, 김선, 그린씨, 부순정, 김영란, 교육을 함께 고민할 사람을 기다립니다

선관위: 한은정, 김선

위원회 참석을 원하면 사무처장에게 연락주세요

상설위 3개(정책위, 조직위, 선관위) + 청녹당 + 의제모임들

안재홍: 샤이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 녹색당. 올 한해는 당원들에게 보다 많이 열어놓고 10년차를 맞아서 재창당에 준하는 어려운 시기인데 함께 신뢰와 우애를 나누며 갔으면 좋겠다. 뒷풀이는 자유롭게.

봄봄: 운영위원회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회를 마칩니다 끝 (5시 13분)

기념촬영